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개인사업자도 재무목표 가져라

매출·지출 투명성 확보해 투자 설계를

사무실 이전 계획 세웠다면 자금 흐름부터 파악
제2금융권 대출 증가땐 과감히 사업 양도 고려를

최근 열풍처럼 불고 있는 개인 재무설계는 개인의 재무목표를 세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사업소득자는 개인자산과 별도로 사업에 대해 재무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재무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이러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과 신용 매출이 구분되지 않아 매출액 파악이 어렵고 사업 지출과 개인 지출을 구분하지 않아 지출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이같은 매출과 지출의 불투명성은 개인 사업의 수익성 파악에 어려움을 미치고, 합리적인 지출 규모를 결정하기가 불가능해지므로 사업에 대한 자금과 개인에 대한 자금을 구분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사업에 따른 매출과 지출을 투명하게 운영했다면 두 번째로 사업계획서를 재점검해 사업에 대한 향후 목표와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상 필요한 사업자금흐름은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사업장 유지 또는 사업장 이전, 사업에 필요한 기기 구입, 대출금 상환 계획을 들 수 있다. 자금흐름 파악시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매출 대비 순수익 비율, 비용 처리에 따른 절세 효과와 같은 재무건전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잔여 계약기간 이후 사업장 유지에 따른 임차보증금 증액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금계획을 세워 부동산 자금에 대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만료가 2년 남았다면 현재의 매출 증가추이 등을 고려해 5천만원의 사업장 이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매월 200만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과 관련한 고가의 기기가 필요할 경우 자금 흐름과 절세 측면에서 그 기기를 구입할 것인지, 금융리스를 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사업체의 자산상황이 좋더라도 관행적으로 리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유행을 타는 사업이나 현금 유동성이 클 경우에는 금융 리스를 통해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대출금리, 상환 기간, 사업체 현금 흐름에 따라 이자 상환 또는 원리금 상환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사업 상황이 악화돼 건전도가 떨어지는 제2금융권 등의 대출이 늘어난다면 과감히 사업에 대한 양도를 고려해야 한다.

경비 내역은 절세와 직결되므로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예를 들어 직원 고용에 따른 급여 지출, 각종 경비 지출 내역, 사업과 관련한 자본 지출 등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혹시 있을지 모를 세무조사에도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미금리 0.25%P 인하 약발
국내증시 상승세 지속될 듯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국내증시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뒤 약세로 마감됐지만 향후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코스피지수는 이날 새벽 미국 FOMC가 연방 기금금리를 4.75%에서 4.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48포인트(0.99%) 오른 2,085.33로 출발, 지난달 29일 장중 최고 기록인 2,070.86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최근 지수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 약세로 마감됐다.

코스피지수는 1.71포인트(0.08%) 내린 2,063.14, 코스닥지수는 0.57포인트(0.07%) 떨어진 809.50에 거래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달러 약세, 원화강세, 유가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등의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경제둔화를 완화하고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늘려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양종금증권 김주형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하와 함께 발표된 미국 GDP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저금리 기조의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정보기술(IT)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0월 수출 348억弗…증가세 둔화

10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월간 단위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러나 이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추석이 올해는 9월로 옮겨간 데 따른 효과로, 실제로는 원화 강세와 유가 급등 등의 영향이 나타나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이다.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증가한 347억9천만 달러, 수입은 27.2% 늘어난 325억9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1억9천만 달러였다.

10월 수출과 수입실적이 모두 월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지난해 10월에는 추석이 끼어있었지만 올해는 추석이 9월에 있어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3.5일 늘어난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전체 통계의 호조와 달리, 실제로는 수출 증가 속도가 이전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이다.

실제 9~10월 두 달을 묶어보면 이 기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이 14.4%를 기록한 상반기에 비해 떨어졌고 10월 수출액을 조업일수로 나눈 일평균 수출입액도 14억5천만 달러로 증가율이 9월(19.4%)의 3분 1에도 못미치는 6.1%에 머물렀다.

품목별로는 일반기계(52.8%), 자동차(32.0%), 무선통신기기(42.7%)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합뉴스

연구비 착복·금품 수수·논문 조작

住公 산하기관도 도덕적 해이

대한주택공사 산하 연구기관인 주택도시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금품수수 등 개인비리는 물론 논문 조작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택공사가 8월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원들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해 더 이상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연구원 소속 전문직 2급 연구원 4명은 금품수수, 연구 데이터 변조, 연구내용 임의 변경 등이 드러나 지난 8월2일자로 2명은 파면되고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을 당했다. 주택도시연구원장은 관리책임의 잘못을 물어 경고를 받았다.

파면된 A모씨는 연구원의 연구비를 개인용도로 착복했을 뿐 아니라 금품수수, 연구기자재 개인 사용, 연구논문 조작 등이 적발됐다. A씨는 1995년부터 주택도시연구원에서 근무해 왔다.

나머지 3명도 금품수수, 논문 조작 등을 공통적으로 저질렀다.

주택도시연구원은 주택공사의 주택도시 및 건설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1962년 설립된 주택공사 산하 기관으로 73명의 연구원이 근무중이다.

주택도시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과제를 정해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하는 경우도 많아 논문 조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윤 의원은 또 "연구원은 수시과제 선정, 수탁연구비 집행 등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폰·IPTV 여기까지 왔다

최첨단 신제품 기기를 선보이고 있다.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통부 주최로 열린 'VoIP/IPTV월드 2007'에 참가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업 '스카이프' 홍보 관계자들이 IPEVO USB폰 등 /연합뉴스

"국세청 세무상담 유료화는 국민 무시"

국세청이 추진 중인 전화상담서비스 유료화 방안은 공공요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최근 전화 세무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화상담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최근 전화 세무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상담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상담수요를 억제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현행 법률로는 상담 수수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했고 관련 설문조사까지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체 행정부처의 콜센터가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외국 국세청의 경우에도 전화상담을 유료화하는 곳은 없다"면서 "세무사 등에 대한 차별적인 유료화는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공공서비스를 유료화해서 공공요금을 높이려 하고 나아가 수수료를 자체 경비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처사"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소득세 개정 서민층 감세 효과 없다

소득자 20%만 과표조정 혜택

정기국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11년 만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혜택이 말 그대로 '20대 80'으로 나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근로 및 종합소득자 가운데 과표구간 조정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5명중 1명꼴에 불과하며 경감률도 소득세의 원칙인 누진성과 무관하게 들쭉날쭉하게 나타나 일반 중산층과 서민층의 감세 효과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상황이다.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작성한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의 혜택을 받을 인원은 2005년 귀속분 기준으로 추정할 때 346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선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 1천186만명중 과표구간 조정과 무관한 면세점 이하자가 576만명으로 전체의 48.5%이며, 사업소득자중 종합소득 신고대상자 437만명 가운데 면세점 이하자는 242만명으로 54.6%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면세점 이상이라도 과표 1천만원 이하여서 혜택이 없는 사람이 근소세 납세자의 55.1%, 종소세 납부자의 62.1%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를 합한 1천624만명중 실제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표 1천만원 초과 해당자는 21.3%인 346만명이고 나머지 면세점 이하 및 과표 1천만원 이하인 78.7%, 1천278만명은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부담 혜택과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회화·판화 등 미술품 수입 3배 늘어

국내 미술품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회화, 판화 등 미술품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수입된 미술품은 4억6천290만7천달러로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1억4천901만3천달러의 3.1배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회화가 3억5천294만7천달러로 272.0%, 판화가 1천68만7천달러로 599.0%, 조각이 9천927만3천달러로 88.7% 각각 늘어났다.

회화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2억544만7천달러), 영국(5천555만달러), 스위스(2천124만6천달러) 등이었고 판화의 주요 수입 상대국은 영국(405만2천달러), 미국(352만달러), 프랑스(114만5천달러) 등 이었다.

조각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5천682만2천달러), 스위스(1천620만2천달러), 이탈리아(933만7천달러) 등이었다. 관세청은 2000년대 들어 세계 미술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불황에 빠져 있었던 국내 미술품 시장도 지난해부터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미술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서 장보기 겁나네

유가 상승·배추, 오이 등 채소류값 급등 여파
10월 소비자물가 3.3%↑… 전국 평균 웃돌아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물가가 국제 유가 상승과 채소류 등 '장바구니' 물가 급등의 영향으로 지난 2005년 물가지수 개편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3.3%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3.0%)을 웃도는 것으로, 지난 2005년 2월(3.5%)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남도 전년 동월대비 물가 상승률이 3.3%에 달하면서 광주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전남의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3.3% 상승한 것은 지난 2004년 9월(4.0%) 이후 처음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장바구니' 물가로 통하는 생활물가지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4.6%, 4.5% 치솟았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물가가 뛴 것은 올해 유가 급등으로 인해 각종 공업 및 서비스 요금 등이 크게 오른 데다 최근 채소류의 출회가 급감하면서 전반적인 식료품값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는 양상추가 지난해 10월에 비해 189.0%나 오른 것을 비롯, ▲오이(105.6%) ▲배추(74.6%) ▲귤(63.6%) ▲호박(61.6%) 등 채소류의 가격이 급등했다. 또 ▲쓰레기봉투료(56.5%) ▲시내버스료(18.6%) ▲전철료(17.3%) ▲금반지(18.6%) ▲연탄(16.7%) 등 공업제품 및 서비스요금도 크게 올랐다.

전남은 상추가 111.0% 오른 것을 비롯, ▲배추(97.8%) ▲오이(78.3%) ▲고등학교 납입금(22.2%) ▲시내버스료(13.1%) ▲자동차학원비(34.8%)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뛰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병원 CS 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4	062-673-5217
백선프렌트산업㈜	전자부품연구원 디지털컨버젼스 연구센타 시설관리직	고졸/경력무관	2000~2200	11/05	042-472-5611
㈜HRN	SK텔레콤 기지국유지보수 및 관리 남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1/05	062-529-2671
서울검사㈜	2007년 하반기 비파괴검사원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1/07	062-369-0790
리더스클럽	영업부, 조리부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7	02-579-9500
(유)남일건설기술공사	토목설계 정규직 사원	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07	062-603-1587
대방포스텍㈜	조명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7	062-573-8585
㈜환경설비엔지니어링	건축설비설계 사원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1/09	062-512-2242
태용산업	생산파트 및 밧테리 생산라인 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10	016-683-0943
㈜코엔텍	자가측정/토양환경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11/10	062-515-4666
현대리빙	정규직 경리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15	062-944-0129
파이넨셜인슈㈜	2007년 전문 재무설계사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11/16	062-226-2200
㈜백승통신	캐드 도면 작성, 데이터 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6	062-654-0600
여수수산유통㈜	경리,회계.업무 및 유통전산시스템관리	고졸/경력1년	1000~1200	11/16	062-267-762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막바지 대기업 공채 노려라

LG엔시스·엠코 등 신규채용

"아직까지 좋은 소식을 못 들은 구직자라면 올해가 가기 전 남은 대기업 공채에 '올인'해보자"

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인크루트·사람인에 따르면 엠코는 토목·전기·설비 등의 분야에서 일할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4년제 대졸(예정)자로 전 학년 평균평점이 3.0점(4.5점 기준), 토익성적은 700점 이상인 사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행정·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 등에서 신규인력 86명을 뽑는다. 학력이나 연령제한은 없으나 외국어 관련 공인어학성적이 있어야 한다.

IT 인프라 구축기업인 LG엔시스는 신입사원 공채 원서를 오는 3일까지 접수한다. 두산중공업은 경력사원을 대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발전·건설·담수·원자력 사업과 연구개발, 시운전 분야 등이다. /연합뉴스